로컬플러스

군산 지역인재 기업 만남의 날 행사

지역 청·중장년 구직자와 우수 기업체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26일 군산기계공고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군산시와 군산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김양원 군산 부시장을 비롯한 페이퍼코리아(주) 등 도내 우수 강소기업 총 4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직자들을 상대로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 등을 진행하는 등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 1,500명 중 140명이 1차 합격을, 12명이 현장채용 되는 등 큰 결실을 거뒀다.

이번 행사는 취업준비생과 일반구직자에게 채용설명회와 유관기관 취업지원 사업안내 등 양질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군산시는 경암동 동부시장 주변 상가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익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반인에 개방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과 토지주와 협의를 마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부시장 주변 상인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난 20일 완료했다.

또한 교통 불편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와 가로환경 저해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의무'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군산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년 14명, 2014년 14명, 2015년 15명 올해 4월말 현재 4명이 숨져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군산시에서 발생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면 횡단보도에서 1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0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하고 군산시와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 통제

군산해경, 6월 1일부터 물이끼 껴 표면 미끄러워 실족사고 예방위해

군산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TTP) 전 구간의 출입이 통제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군산항 남방파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6월 1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의거 해당구역 일부를 출입통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 제정 이후 군산해경이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총 9개소에 대해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이번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은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으로 보행구역으로 조성된 구간을 제외한 방파제 구조물인 테프라포드(TTP) 전 구간에 해당된다.

남방파제는 육로를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에 가로수처럼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안전을 무시한 일부 낚시꾼들이 안전펜스를 넘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시꾼 김모씨(42)가 TTP 사이로 실족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해 말, 해당 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6월부터 한달 간 계도·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TTP 표면에는 물이끼가 자라고 있어 쉽게 미끄러질 수 있고 실족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 내 무단 침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홍보투어

앙골라 등 4개국 대사 포함 11개국 직원·가족 40여명 서동공원 등서 전통 체험

익산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익산서동축제2016'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익산홍보투어행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10일까지 약 한 달간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대상으로 팸투어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앙골라, 방글라데시, 태국, 타지키스탄 등 4개국 대사를 포함 11개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40여명이 투어를 신청했다.

이날 금마면 서동공원에 도착한 방문단은 백제의상으로 갈아입은 뒤 무예 체험장, 유물발굴 체험장, 마캐기 체험장 등에서 각종 체험과 행복나눔존, 포토존, 서동장터 등을 돌며 축제장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서동축제의 유래와 백제고도로서 익산이 갖는 가치,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해 지속적 발전을 꿈꾸는 익산을 알리며 익산의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익산시가 서동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주한 외교사절 초청 익산홍보투어행사를 벌였다. 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서동축제 개막식.

오후에는 백제 무왕이 천도해 왕궁을 건설했던 왕궁리 유적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둘러보며 고도 익산의 역사와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 투어 마지막 코스로 현재 익산의 대표관광지로 육성 중인 보석박물관을 방문해 블링블링주얼리페스티벌을 관람했다.

이번 투어에 참가한 앙골라 알비노 말룽구 대사는 "흥겨운 서동축제장을 돌면서 백제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더불어 세계유산 유네스코도 함께 구경할 수 있어 보람되었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익산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자활센터, 사업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황인걸)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도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평가는 자활사업 역량제고와 성과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형(120개), 도농복합형(53개), 농촌형(65개) 등 유형별로 나눠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된 자활기업육성 ▲민·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자활네트워크 구축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센터사업비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자활센터 직원들과 참여주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로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금마서동공원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국가예산 7,500만원 지원받아 총면적 1만6,000㎡ 규모

익산시가 올해 국가예산 7,500만원을 지원받아 익산시 금마서동공원에 총면적 약1만6,000㎡ 규모의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 숲 체험원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으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 시설이다.

2013 산림청 산림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체험·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변화로 산림교육에 대해 학부모의 94%, 교사의 97.2%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련된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2월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달 중 유아숲체험원 조성 착공에 들어간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국?시비 각 7,500만원)을 투입해 야외체험학습장과 해먹, 줄타기 등 놀이시설을 포함한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유아 숲 체험원을 완공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산림교육을 위해 유아숲지도사 1명을 배치해 이용을 희망하는 유아보육시설단체의 숲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산림교육을 통해 심리안정, 면역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유)농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유)농토(대표 김현태)가 선정됐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 주산지중심으로 농가를 조직·규모화해 공동경영체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유)농토는 서면평가 60%, 발표평가 40%로 내·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 9개시도 22개 경영체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10억원의 사업비가 주어지며, 올해는 공동경영체 조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진행되고 2017년에는 저온저장과 집하장, 선별기 등 시설 및 장비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유)농토가 경쟁력 있는 고구마 공동경영체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를 통해 고품질·저비용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갖춰 익산시를 명실상부한 고구마 주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13년에 설립된 (유)농토(낭산 소재)는 33개 농가가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고구마 종순과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남해 및 서해 일부 지역 환경검체(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 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10월경에 주로 발병한다.

특히 만성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 주로 발병하며 사람간 감염되지는 않는다.

균에 감염됐을 경우 16~24시간 정도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복통, 급성 발열, 오한, 혈압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36시간 정도가 지나면 부종, 반상출혈, 수포 등의 피부병변이 발생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없을 시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패류는 가급적 -5℃이하로 저온 보관, 85℃이상 가열 처리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해야하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손질 도중 피부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